

모든 일의 관철에 있어
필승의 략판과
투지를 백배하자!

송학신보

준호중앙통신사 공보지

제11호[루계제18호]

준호21(2024)년 12월 1일 (일요일)

신년을 그 누구보다
희망 차게 맞이하자!

사설

변혁의 해 2024년을 광휘롭게 마무리하자

(대전 12월 1일 발
준호중앙통신)

2024년의 이름으로 불려보는 마지막 월입니다. 시간은 어김 없는 흐름으로, 또 거스를 수 없는 힘의 작용으로 세월의 세대를 교체해나가지만, 우리의 추억은 그 흐름이 무색하게 다양하게 쌓여가며 우리에게 시계 침을 돌리는 혁동력으로 기동했습니다.

특히나 금년은 그 어떠한

해보다 가장 큰 변혁이 존재했던 해, 가장 큰 혁동성이 존재했던 해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이 분명하기에, 더 가치 있고 언제까지나 길이 세겨질 것입니다. 『새로움』이라는 형용사로 써 대변될 수 있는 해였습니다. 매순간, 매일, 매주, 매달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건들의 연속으로써, 또 그에 상응하듯 여러 과업들이 산적함으로써 그를 완수하며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이제 한 장만의 달력만

이 남은 지금, 되돌아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혁과 새로움을 체감했던 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고 끊임없는 변혁의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무자비한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깨닫지 않은 것들의 무수한 유혹에도, 다리유가 있겠거니 무사히 넘겼던 그 역경들도 결국에는 조그마한 티끌, 그러니까 결국 책 한 페지 만도 못한 두께로서 체감되는 지금이 더욱 기쁘고 가치있게 아려온다고 할 것입니다.

2024년, 어느 후날 회상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 그 회상의 정도와 깊이가 남다를 해입니다. 이제 곧 우리의 기억으로만 남아버리게 되는 한 해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년을 누구보다 광휘롭게 마무리 합시다. 그렇다고 해년, 2025년이 대적으로 평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닥쳐도 지금처럼 값 있게 살아간다면 문제

히 다 지나고 돌아보면 여러 추억들로써 흘러 우리들 기억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래년도 그 날처럼 값 있게 살며 광휘로운 나날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추억이 깃든 올해를 잊지 말되, 아름답게 고이 접어 보내줍시다. 그 어떤 연도보다 빛났던 혁의 해, 2024년아 잘 가라.

[준호중앙통신]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소속 학우들이 학술제 성공적 진행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 참석 하시였다

(대전 11월 17일 본사특파원발
준호중앙통신)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11월 15일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울』 비상

대책위원회가 주최, 주관한 『2024 정치외교학과 학술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 참석 하시였다.

더불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소속 학우들, 동학과 소속 교수들,

기타 외빈들이 참가하였다. 행사는 오전에 개회식, 학과 소속 동아리 성과보고의 순으로, 오후에 『정외 퀴즈쇼』, 『프레젠테이션 대회』, 모의국회 『노란봉투법: 투쟁, 그리고 정치』와 그 후속 토론 활동, 시상 및 경품

추첨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외교학과장은 말고 있는 박영득교수동지는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이번 학술제를 통해 정치학이 추구하는 실천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치학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는 학우들의 열이 거의 집중된 행사가 바로 이번 행사라시며, 학우들의 로고와 노력들을 높게 치적하시였다.

[준호중앙통신]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소속 학우들이 학술제 성공적 진행 경애하는 양준호동지께서 참석 하시였다



성명, 담화, 토론

진실된 사과

준호중앙통신사 김은정 조선반도국 국장 담화

[준호21.11.9.]

근래 우리 원수님께서의 가족사, 또 그에서 비롯된 일부 인사들의 국정 개입론란이 화두로 다가오고 있다. 이 국정 개입이니, 뭐니 하며 그 일련의 사건들 자체에 대해 풀어다. 그보다를 판단하기 앞서, 자기들 삶 살기에도 벅찬 우리 민들께 별 쓰잘데기 없는 소식을 전하는 그 행태 자체의 부적절성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다. 원수님께서는 지난 10월 7일, 『어떠한 것』에 관하여 『사과』 하시였다. 왜 『어떠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가에 있어서는, 원수님 본인께서 『사과』의 대상을 둥동그려 말씀하시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냥 전국적 비판이 거세차게 일어오르자, 형식상하는 『사과』라고 생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분명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의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적어도 국정의 운영 동력을 조직적으로 상실하게끔 하고픈 자신 반대 것들의 선동이며, 정권교체 책동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에 적은 저러한 『사과』인지 뭔지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성을 갖춘 인간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신만의 정보, 혹은 주변의 매몰된 사람들로부터의 정보만을 리용하여 독창적이고 특이한 리론을 형성하거나, 또 그를 정론으로 채택하는 것의 상당하고 지대한 실수는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에게 달콤한 이야기, 즉 유리한 정보가 존재하여 그가 리론 형성에 절대적으로 득이 되는 현상이 존재하는 경우는 농후하다. 그렇지만, 그를 절대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흔히 『진실』이라

고 하는 것이 주로된 정보가 존재한다. 그 정보를 가공하여 배척,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실』과 꾀리되는 리론을 형성하는 순간, 그 리론가는 언젠간 『진실』을 배척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형성된 그 리론이 통념과 상당히 동떨어진 상황이라면 더욱 가중되고

엄청난 후폭풍의 무력을 체감할 것이다. 『진실』이 어여쁘다면 언젠간 다 까발려진다.

2024년 11월 9일

신그희 맞이하자!

『준호중앙통신사』는 경애하는 양준호동지의 일거수일투족과 국내 / 외 정세를 전합니다.

『송학신보』 준호21(2024)년 제11호 [루체제18호]; 발행 - 준호21(2024)년 12월 1일 (일요일) 준호중앙통신사 보도국

저작권 2024 © 준호중앙통신사